

운치있는 펜 그림으로 만나는 산사의 풍경과 역사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주말엔 산사

윤설희 지음



순천 선암사는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사찰 가운데 하나다.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에도 이름을 올린 천년고찰이다. 대웅전, 만세루, 범종루, 일주문, 지장전, 심검당, 설선당, 응향각, 무량수전 등 전각들의 가름들이 발하는 운치는 고풍스럽다.

알려진 바로는 선암사(仙巖寺) 명칭은 커다랗고 평평한 바위에서 유래했다. 구전되어 오는 설화는 이렇다. 아주 오랜 옛날 신선들이 조계산 서쪽의 커다란 바위에 앉아 바둑을 두었다. 신선들은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바둑 삼매경에 빠졌다. 신선들의 그런 '신선놀음'은 영험한 바위가 주는 기운과 무관치 않았을 터였다. '선암'은 그러한 유래에 의해 정명되었을 것이다. 어느새 여름이 저물고 선선한 가을이 눈앞에 당도해 있다. 지난여름을 떠올리면 폭염과 폭우로 기억된다. '역대 최장 무더위와 열대야', '기록적인 폭우' 등등의 수사가 자연스러울 만큼 지난여름 날씨는 가혹했다.



순천 선암사의 아치형의 '승선교'는 고찰 특유의 정취와 분위기를 선사한다.

〈휴머니스트 제공〉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은 지쳐있다. 어떤 이들은 마음 둘 곳이 없다고들 한다. 위기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까운 산과 들, 강으로 떠나 있는 이들이 느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래픽 디자이너 윤설희 또한 지친 평일을 뒤로 하고 주말엔 산사를 찾는다. 그가 펴낸 에세이 '주말엔 산사'는 지금까지 방문했던 100곳 중 기억에 남는 7군데를 담았다. 펜으로 묘사한 세밀한 그림과 짧은 문장의 글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저자가 소개하는 가장 첫 번째 사찰은 조계산 선암사

다. 10년 넘게 삼성전자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저자가 제일 먼저 언급한 고찰이 선암사라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이다. 펜으로 그린 그림답게 책에 수록된 삽화들은 특유의 정교함과 깊은 감성을 선사한다. 저자는 외국인들에게 선암사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절이다. 한국 고건축의 고졸한 미와 웅숭깊은 문화가 깃들어 있을 것인데, 경내 전각들은 저마다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건물 간의 관계가 자연스러우며 주변 산세와 잘 어울리는 가람배치"는 공간이 다채로운 모습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선암사는 모두 15개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유산의 관점에서도 가치가 높다.

화순 천불산의 운주사도 이색적인 설화와 인상적인 석조물을 간직한 고찰이다. '신동국여지승람'에는 이곳의 석불과 천탑이 각각 1000 개라는 기록이 있다.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일본 도굴꾼 등에 의해 반출이 되거나 훼손이 됐다.

해방 이후에도 민간인들이 석조물을 가져다가 밭이나 건물 등에 사용하면서 현재는 18개 석탑, 80여 개 불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운주사가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게 된 것은 황석영의 '장길산'에 등장하면서였다. 이후 시인들의 작품의 소재가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역사적 가치와 맥락, 의미 등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정호승의 '풍경 달다'를 비롯해 문정희의 '운주사 골짜기', 황지우의 '구름바다 위 운주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곳 석탑에는 민중들의 염원과 이상이 투영돼 있다. 건축학적 관점의 미려하고 웅장한 조형성보다 민중의 삶과 감성이라는 내용적 측면이 이목을 끈다. 뛰어난 장인이 아닌 일반 석공들의 땀과 피와 열정은 시간을 초월해 위안과 평안을 준다.

규모가 크고 화려한 감제의 금산사도 산책하기에는 좋은 절이다. 보제루 밑 계단을 오르며 경내 마당으로 들어설 때 펼쳐지는 풍경은 색다른 느낌을 준다. 누각 아래 구조물이 하나의 액자 틀의 기능을 하며 저편의 마당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게 한다.

이밖에 책에는 만수산 무량사, 봉황산 부석사, 운길산 수종사, 수도산 봉은사 등을 답사하며 기록했던 글과 그림이 수록돼 있다. 감각적인 펜화가 주는 운치는 덤으로 얻을 수 있다.

〈휴머니스트·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왜 성공한 리더들은…미술관에 가는가 아키토모 유지 지음, 정지영 옮김

삼성 이진희 회장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이들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가'라는 점 외에도 '미술관 컬렉터'라는 공통점이 더 있다.

이진희 회장은 단순한 수집가를 넘어 '이진희 컬렉션'으로 한국 미술계를 진정성 있게 이끌어 온 문화리더로 평가된다. 빌 게이츠 역시 미술 애호가로 잘 알려져 있다. 두 사람 외에도 제프 베이조스, 현대카드 정태영, 방탄소년단 RM 등 많은 리더들이 예술에 진심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리더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뉴욕의 MoMA, 메트로폴리탄, 구겐하임, 런던 테이트 모던, 파리 퐁피두 센터 같은 미술관의 문을 두드린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도쿄예술대학의 미술관장이자 명예교수인 아키토모 유지가 최근 펴낸 '왜 성공한 리더들은 아무리 바빠도 미술관에 가는가'는 그런 궁금증에 답을 준다. 저자는 쇠락한 일본의 한 섬마을을 세계적인 아트 명소로 탈바꿈시킨 '나오시마 아트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책은 미술이 리더의 사고와 행동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조명한다. 총 다섯 개의 장을 통해 리더가 미술관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사고하며,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오늘날 기업을 이끄는 리더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현대미술의 거장 마르셀 뒤샹, 앤디 워홀, 요제프 보이스를 다루고, 아트가 비즈니스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낸 사례들도 상세히 소개한다.

결국, 저자는 책을 통해 예술을 단순히 취미로 치부하지 않고 리더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센시오·2만3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붓다의 수첩·담마

기도 대신 명상과 수행에 마음을 기울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부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 신격화된 상징과 의식 너머 붓다의 발자취를 온전히 되짚는 시도는 흔치 않다. 용인 여래향사의 주지 성찬스님이 펴낸 '붓다의 수첩·담마'는 그 공백을 채우는 책이다. 경전 속 붓다의 생애를 신화가 아닌 역사로, 교리를 위한 사례가 아닌 한 인간의 실존으로 되살려낸다.

책은 붓다의 출생과 출가, 수행과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고대 인도의 정치·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려낸다. 수행자이자 법사인 저자가 남방 상좌부 불교 전통 속에서 오랜 시간 체화해온 실천과 사유를 바탕으로 부처를 '복을 비는 신'이 아닌 '스승이자 동행자'로 다시 조명한다. 왕족의 삶을 뒤로하고 숲속에서 외길을 걸었던 붓다는 고행을 버리고도 끝내 진리에 이른 존재였다.

책은 '담마(Dhamma)'와 '쌍가(Sangha)' 2부작 중 첫 권이다. 이번 책 '담마(Dhamma)'는 당시 인도의 종교와 사상 지형, 계급 구조, 수행 문화까지 아우르며 불교 탄생의 시대적 맥락을 촘촘하게 그려낸다. 본문에는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 한역 경전을 넘나드는 주석과 함께 독자의 이해를 돕는 중간 제목과 지도, 용어 해설이 풍부히 담겼다.

저자는 "부처는 단아한 법의 상징이기 이전에 하루 한 끼 공양을 걱정하며 동냥을 다니던 거지와 다르지 않았다"며 "반들반들한 불상이나 절집 속 우상이 아니라 갈증과 병, 제자의 실수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이었다"고 말한다.

〈수류산방·중심·2만7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성한 지음

클래식이 알고 싶다: 인상 카페 편

안인모 지음

클래식 음악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이들에게도 한 번쯤 마음을 흔든 선율은 있다. 차이콥스키의 왈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드뷔시의 달빛, 라벨의 볼레로처럼 말이다. '클래식 이 알고 싶다: 인상 카페 편'은 이런 음악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그 음악가들의 내밀한 삶을 담아낸다.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 스토리텔러 안인모가 펴낸 '클래식이 알고 싶다'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다.

책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인상주의 음악이 피어오르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러시아에서 파리로, 살롱에서 콘서트홀로 무대를 옮기며 새로운 예술을 추구한 음악가 7인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말러, 드보르자크, 드뷔시, 라벨, 사티. 그들의 음악은 낭만의 정점이자 모더니즘의 문턱에 선 예술이었다.

저자는 이들의 음악적 궤적을 물론 사랑과 외로움, 열정과 좌절이 얹힌 삶의 단편을 편지, 일기, 사진 등을 바탕으로 풀어낸다. 낯설고 무거운 용어 대신 친근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독자와의 거리를 좁힌다. 특히 각 장마다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명곡을 바로 감상할 수 있어 '읽고 듣는' 입체적 경험이 가능하다.

클래식의 뒷이야기를 알고 듣는 음악은 색다른 감상을 전할 것이다. 차이콥스키의 '비창'은 사랑의 고통을 담은 마지막 인사처럼,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은 절망 속 피어난 생의 증거처럼 들린다. 책은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 친절함 입문서로, 오랜 애호가에게 교양서로 다가간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도 한 곡의 선율이 흐르기 시작할지 모른다.

〈위즈덤하우스·1만8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를 받은 광고물입니다.